

0823(화) 예레미야 애가 1–2장 왜 고난 당하는가?

<심판, 멸망, 새로운 시작>에 관한 말씀들은
자칫 도식화되거나 기계적으로 접근할 소지들이 있습니다.
예레미야 애가는 심판과 멸망에 담긴 깊은 고통들과
회복을 위한 치열한 과정들을 심도 깊게 다룹니다.

예루살렘의 멸망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.
다윗 왕조에 대한 견고한 약속이 무너져 내리고,
언약 백성이라 자부하던 이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.
그들을 떠받쳐 온 신앙과 삶의 근간이 파괴되었습니다.
상실과 혼돈, 영육의 고통이 개인과 공동체를 엄습했습니다.

이스라엘은 수치와 굴욕 앞에 부르짖었습니다.
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참혹한 현실(1장),
심판의 냉혹함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(2장).
그러나 그 고통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죄,
백성의 의무를 망각한 불의들에 마땅한 보응이었습니다(렘2:3,5:23).
그들은 죄와 고통의 원인을 마주 보아야 합니다.

예레미야 애가서는 <이유 있는 고통>에 대해 다룹니다.
이스라엘은 혼돈과 무질서, 절규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
고난과 고통의 원인인 <죄>를 직시하고 인정해야 합니다.
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.

유대인들은 아브월 9일이 되면 예레미야 애가를 낭독합니다.
솔로몬 성전, 제2성전이 공교롭게도 모두 이 날 무너졌습니다.
애가서를 통해 심판과 멸망, 죽음과 흘어짐에 귀 기울이며
하나님과 멀어질 때 벌어지는 재앙들을 깊이 되새깁니다.

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은 무엇입니까?
❶ 표면적 원인은 무엇이며, 근본적 원인은 무엇입니까?
❷ 고통으로 인해 느끼는 감정과 감수해야 할 현실은 무엇입니까?